모델 출신 3인방 안방 장악

메트로 2014년 5월 26일 월요일 제[illegible]호 www.metroseoul.co.kr

류현진 내일 5승 사냥한다

지방선거 '세월호' 오버랩 6·4 지방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유세차·로고송 등을 뺀 '조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원고 인근 사거리에 선거벽보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연합뉴스

우리 경제 '세월호' 딛고 정상 찾아가나

음식점 등 소상공인 78%가 "타격입었다" 응답
기업들 해외시장 점검·신제품 출사…공격 경영

세월호 참사로 위축돼 있던 산업계가 경영활동 정상화에 나서면서 국내 경제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호적인 증시 흐름과 맞물려 최악의 내수 침체를 겪던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특히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21일 여행사, 음식점,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400명을 조사한 결과 77.8%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안 받는다'는 12.2%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여행사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 관리와 사업지원 서비스업' 가운데 85.7%가 매출 감소로 가장 피해가 컸다. 숙박·음식업은 81.7%, 운수업 78%, 도·소매업 72%, 예술·스포츠와 여가 관련 산업 70%가 큰 피해를 입었다. 세월호 사고 한달 전과 비교하면 소상공인 중 79%가 매출이 줄었고, 감소폭은 37.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자금난이 심해져 부채가 늘어났다는 소상공인이 27.8%, 세금 체납 23.4%, 임대료 지연 21.8%, 은행 대출 상환 지연 16.5%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전시성 행사나 대외활동 등을 자제해 온 산업계가 경영활동 재개에 나서며 훈풍이 불고 있다. 재계의 경영활동이 정상화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내수소비가 되살아나 소상공인의 영업도 활기를 띠는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기업들은 그동안 미뤄온 마케팅에 시동을 거는 한편 지난달부터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던 사내외 행사를 다시 열고 있다. 세계적인 축제이자 마케팅 기회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데다 영업활동을 더 미루다가는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전략 스마트폰 공개를 앞두고 지난 21일 서울 금천구 LG전자 가산 R&D캠퍼스를 방문해 주력 제품 경쟁력을 점검했다. LG전자는 27~28일 런던, 뉴욕, 서울, 이스탄불 등 6개 도시에서 'G3'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 공장과 터키 이즈미트 공장을 방문해 현지 생산과 판매 상황을 살폈다. 또 모만 현지의 쇼룸 개장식에도 참석하는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달 말 롯데백화점 중국 선양점 개장식에 참석하고, 다음 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소비재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19일 철강 중심의 사업 재편을 골자로 한 중기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22일 광양제철소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강연자로 직접 나서는 등 현장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성 현대중공업 회장은 12일 대구에서 열린 현대커민스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정래 종합시장은 19일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물류박람회 '세마트 2014'에 참가해 지게차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2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TV 등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성적과 연계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병행하고 있다.

재계는 월드컵 마케팅뿐만 아니라 대외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일 홍콩에서 외국 투자자와 소통하고 IT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삼성 투자자 포럼'을 열었다.

현대차는 내달 출시할 그랜저 디젤과 신형 카니발의 고객 체험 행사를 열 계획이다. 기아차는 22일 신형 카니발 미디어 공개 행사를 했다. 현대·기아차 모두 이달 말 열리는 부산모터쇼에 참가해 다양한 신차와 콘셉트카를 선보인다. /김유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전국 승강기 점검하니 부품 파손 등 수백 건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안전점검에서 부품손상 등 전국 승강기 미비점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전국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총 1만4390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84건의 안전설비 결함과 안전관리 미비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9일간 전국 엘리베이터 4894대와 에스컬레이터 9496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적 사항 중 부품 마모와 파손 등 안전시설 미비 사항이 4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뉴얼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갖추지 않았거나 자체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는 223건이었다. 또 사고 예방 대응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7건도 확인됐다.

안행부는 결함이 있는 부품은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토록 하고, 매뉴얼·안전수칙·비상연락체계 등은 이달 말까지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이나 점검 기록 미기재 등 안전관리 이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1037건은 현장에서 시정했다. /정민준기자 [illegible]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는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정문회 준비 분주한 안대희 내정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간판세 박원순 > 정몽준

세월호 '민심' 여권에 불리… 경기·인천은 오차범위

6·4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5일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한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는 초반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앞서는 추세다.

최근 여론조사 중 중앙일보가 21일 해당지역 유권자 4800명을 전화조사(95% 신뢰수준 ±3.46% 표본오차)한 결과, 박 후보는 53.5%의 지지율로 34.4%의 정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따돌렸다.

17일부터 사흘간 지상파 방송3사의 1만4000명 전화 조사(95% 신뢰수준 ±3.5% 표본오차)에서도 정 후보 지지율은 35.4%, 박 후보는 51.0%로 격차가 15.6%포인트에 달했다.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남 후보 지지율은 39.2%, 김 후보 지지율은 30.7%였다. 지상파의 경우 남 후보가 34.8%, 김 후보가 35.7%로 남 후보가 김 후보에게 오차 범위 안에서 뒤졌다.

인천시장도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가 지지율 오차범위를 왔다갔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유 후보 지지율은 36.1%, 송 후보 지지율은 41.7%였다. 방송3사에서는 송 후보가 42.1%의 지지율로 31.8%인 유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새누리당은 다소 뒤지고 있지만 해볼만하다는 '경합열세'라는 판단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심할 수 없지만 우세하다는 전망이다.

/약정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6월4일 바쁘면 '사전투표' 하세요

6·4 지방선거에서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30·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다.

선거 당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없이 신분증만 있으면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돼 가능해졌다.

사전투표의 최대 장점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이 해당된다.

/김연준기자

'황제노역' 논란 후 개정형법 29일 첫 판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으로 형법까지 개정된 이후 검찰이 870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사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된 형법은 50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역일당을 산정하도록 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씨는 2012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역세서리 도소매업체 명의로 1740여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주거나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3일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70억원을 구형했다.

벌금형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174억원)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특가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박씨의 노역일당은 최소 8000만원이 된다. /김연준기자

이색 선거운동 부산 시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이 25일 책배기를 모양 드럼통을 싣거나 꽃장식을 한 이색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이후 남북 국면전환 가능성

지방선거 이어 시진핑·교황 방문 등 잇따라

경색된 남북관계가 6월 이후 조금씩 해빙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올해 초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풀릴 조짐을 보이던 남북관계는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다시 악화됐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우리 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양측 모두 국면 전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일단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로 공석이 된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개편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개편 결과를 주시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전술적으로 유연한 대남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함정을 겨냥한 포격 도발 하루만인 23일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방침을 밝힌 점도 관심이다.

이르면 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북한이 대남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6·4지방선거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8월 14~18일)을 전후한 시기가 남북관계에 다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민준기자

오늘부터 F-35A 시험평가

공군 시험평가단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록히드마틴을 방문해 차기전투기(FX)로 선정된 F-35A에 대한 추가 시험평가에 돌입한다.

방위사업청은 25일 "10여명으로 구성된 시험평가단이 26일부터 2주간 록히드마틴의 F-35 생산공장을 방문해 시험평가를 한다"며 "2012년 진행된 F-35A 시험평가 이후 변동된 것을 위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평가단은 내구성 시험 도중 발생한 균열 등 그동안 나왔던 결함 사항의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7~8명으로 구성된 방사청의 협상팀도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해 기술·절충교역에 관한 3차 협상을 진행한다. /김연준기자

왕이 中 외교부장 내한

왕이(사진) 중국 외교부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26일 오전 1박2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한다. 그가 외교부장으로 취임한 뒤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 부장은 2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윤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으로 이 회담에서 나올 중국의 대북 메시지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동북아 정세 문제를 논의하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와 과거사 문제,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 등을 조율한다. /김연준기자

마포구, '여름철 종합대책'

서울시 마포구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2014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수방 대책 ▲폭염 대책 ▲시민 보건 ▲시설물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10월 15일까지 추진한다.

중랑구, '마을기업' 모집

서울시 중랑구가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구는 선정된 마을기업에게 최대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희망 단체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7월 7~11일 구청 일자리창출추진단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서구, 재난 매뉴얼 정비

서울 강서구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전반에 대한 재정비 보완에 나선다.

구는 이달 말까지 총 25개 분야 매뉴얼로 정비할 계획이다. 위기상황에 즉각·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확충한다.

유병언 도피 도운 신도 체포

범인은닉 혐의 첫 사례… 구원파 10여명 항의 방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죄를 적용했다. 현재 A씨를 상대로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소재를 강도 높게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와 대균씨가 잠적한 이후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A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하자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유씨 부자를 현상수배한 이후 제보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보 접수 시 검·경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원파 소속 신도 10여명이 이날 새벽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멀지 않은 미래? 환경정의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고조를 위한 시민 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미래에는 관광을 온 외국인들이 방독면을 써야 할 것"이라는 컨셉트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뉴시스

엄마와 함께하는 화재진압 체험 25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 내 키자니아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가족 초청 소방 안전체험' 행사에서 소방관 엄마와 아빠이 화재 진압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주민 상담서비스' 확대

서울시 글로벌센터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방문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시는 글로벌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현장으로 찾아가 서울생활을 하면서 겪는 노무·산재·인권 등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4만여 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지역은 기존 혜화동·광희동·이태원·쉬주에서 보문역·대림역·신도림역·창신동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몽골타운·러시아거리·이슬람거리·필리핀거리 등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2018년도까지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상담을 추가하고 몽골 사회보험청·필리핀 노무관리사무소 등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 화재 대피훈련

서울여자대학교는 최근 교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화재대피 훈련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훈련은 연막 발생제를 이용해 실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해 각 담당 직원들이 신속히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화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또한 대피 훈련이 끝난 후에는 소화기 사용 요령과 교내 설비 등에 대해 알려주는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서울여대 기숙사는 입사 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안내 책자에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 방법을 기재해 안내하고 있다.

작년 아동학대로 22명 사망

2001년 집계 이후 최다 절반 이상이 영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모두 22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남자 7명, 여자 15명이었다.

2012년 10명, 2011년 14명에 비해 사망자수가 크게 늘어났다. 기관이 설립된 2001년 이후 집계된 아동학대 사망사례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에다 칠곡과 울산의 아동 학대 치사 사건 등과 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망 사례가 추가돼 예년보다 사망 사례가 늘어났다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설명했다.

특히 사망 아동의 연령은 0세가 8명, 2세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이 영아였다. /윤다혜기자

학교 전기요금 지원 25% 증가

'찜통교실' 해소 전망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찜통 교실·냉동 교실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 규모가 예년에 비해 25%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으로 1004억원을 증액해 일선 학교가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했다. 이어 학교 전기요금의 4%가 인하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기준체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만 4%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할인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증액된 교부금과 전기요금 할인을 더하면 올해 전체 전기요금 추가 지원 규모는 전체 학교 전기요금의 25%에 해당하는 1340억원이다.

예년과 비교해 올해 초·중·고등학교 1개교당 평균 1160만원을 전기요금 납부에 쓸 수 있어 그만큼 학생들이 여름·겨울철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윤다혜기자

"의경 성추행, 해임부당"

수개월간 의무경찰대원 여러 명을 성추행해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A(42)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경위가 성적 의도가 아닌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의경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아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A 경위는 2012년 2~9월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다. /윤다혜기자

"평화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를 이틀 앞두고 24일(현지시간) 아이다호주의 전몰자 묘역에 해병 복장을 한 소녀가 서 있다 /AP 연합뉴스

태국 군부 '레드셔츠' 체포 나서

동북부서 22명 테러모의 혐의 美 원조 등 중단 선언

태국 군부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을 지지하는 일명 '레드셔츠' 시위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군부는 동북부 콘캔주에서 레드셔츠 대원 22명을 테러 모의 혐의로 체포하고 폭탄과 탄약 등 400여 점을 압수했다.

레드 셔츠 시위대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대대적으로 봉기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특히 북부 지방 레드셔츠 대원들은 자체 경비단원 수천 명을 모집해 시위와 방어 훈련을 벌였다. 방콕에서는 계엄령으로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도 전날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정 이양을 촉구했다.

현재 군부는 잉락 친나왓 전 총리와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전 과도총리 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 100명 이상을 구금 중이다. 또한 군부는 푸어 타이당 지도부인 전직 각료 2명이 출두하지 않자 이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쿠데타를 주도한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은 24일 마지막 남은 입법기관인 상원을 해산한 뒤 새 입법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부는 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 모든 입법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또 이전 정부의 쌀 수매 정책에 참여했다가 아직 쌀값을 지급받지 못한 농민 8만 여 명에게 26일부터 수매대금 550억 바트(약1조 7000억 원)를 지불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태국에 대해 원조와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25일 동북부 콘캔주에서 군인이 레드셔츠 대원을 체포하고 있다 /콘캔=연합뉴스

이날 미 국방부는 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과 고위급 교류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태국과 매년 해상 합동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해군과 해병대 병력 700명과 함정, 전투기 등을 참여시키고 있다.

미에 앞서 국무부는 지난 23일 태국에 350만 달러 규모의 경제·군사 원조를 잠정 중단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美 최고 직장' 1위는 구글

임금·복지 혜택 탁월 2위 대량판매점 코스트코

미국에서 연봉과 복지 혜택이 가장 좋은 일터로 인터넷 업체인 구글이 꼽혔다.

24일(현지시간) 미 경제잡지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구직정보업체 글래스도어가 미국 내 약 30만 개 기업 직원을 조사한 결과 구글이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됐다.

글래스도어는 17개 항목에서 5점 만점으로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순위를 정했다. 1위를 차지한 구글은 평점 4.4를 기록했다. 고액 연봉과 남다른 사원 복지 제도 덕분이다.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평균 초임은 12만8000 달러(약 1억3000만 원)다. 애플의 13만2000 달러보다는 낮지만 페이스북(12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11만1000 달러), 아마존(10만5000 달러)보다는 높다.

연봉이 애플보다 낮은데도 구글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특별한 복지 혜택 때문이다. 구글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에게 사망 직원이 받은 월급의 50%를 10년간 지급한다. 또 사내 병원과 요리강좌 등도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구글에 이어 2위는 대량판매점 코스트코가 차지했다. 평점은 4.4다. 코스트코는 시간당 임금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계산대 초임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약 12달러(약 1만2300원)다. 선임 계산대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16달러가 넘는다.

/조선미기자

"여자들이 나를 거부" 미국 총기난사 '충격'

미국에서 20대 대학생이 여성들을 원망하며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

24일(현지시간) 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캘리포니아대(UC) 샌타바버라 인근 이슬라비스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다.

용의자는 영화 '헝거 게임스' 의 조감독 피터 로저의 아들인 엘리엇(22·사진)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이슬라비스타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인 샌타바버라 시티대에 다니고 있었다. 엘리엇의 가족은 최근 그가 자살과 살인에 관한 유튜브 비디오를 올린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엘리엇은 동영상에서 "여자들은 다른 남자들에게는 애정과 사랑을 줬지만 내게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나는 스물두 살 인데 아직도 숫총각이고 여자와 키스해 본 적도 없다"며 외로움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여대생 기숙사에 있는 여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싶다"며 여성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냈다. /조선미기자

창립46주년

고맙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힘들 때 외로울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언제나 당신 곁에 커피가 있었습니다
46년간 당신이 행복할 수 있었다면
동서식품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동서식품

Maxim TOP 동서식품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코스닥
2017.17 (+1.58)	549.70 (+2.95)

금리	환율
2.83 (-0.02)	1025.50 (+1.50)

페이스북, 안전망 강화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은 22일 사용자의 정보가 스스로가 원하는 대상에 한해 공유될 수 있도록 공개 범위에 대한 설정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 가입하는 사용자의 경우 기본 공개 범위가 '친구'로 설정되며 기존 사용자는 게시물의 공개 대상에 대한 알림이 새롭게 제공된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게시물을 올릴 때 전체 공개로 설정돼 있었던 기본 설정 범위가 향후 새 가입자에게는 '친구'로 적용되는 것이다. /채신화기자 csh@

세월호 피해자 금융지원 본격화

생활자금 대출에 원리금 납입 연기까지 다양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긴급 생활자금·경영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등의 납입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은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 변동금리로 제공한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은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을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빌려준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면서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주요 보험사들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연기해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을 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한화생명은 6월 말(보험료 유예)~7월 말(대출 이자 유예),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6월 말, 신한생명은 5월 말 등이다.

손해보험사들도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 이자 납부를 연기해준다. 납입 유예 대상은 피해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피해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와 친척 등이다. 아울러 이번 참사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행중인 활동과 별도로 규정에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대출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은지기자 @metroseoul.co.kr

중·대형아파트 역습 시작됐다

미분양 물량 전년보다 30% 줄어 … 시장서 선전

중소형 인기에 밀려 외면받던 중대형 아파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빠른 속도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년간 공급이 부족해 줄어든 데다 가격 거품도 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만1068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3만729가구와 비교해 31.4% 줄어든 수치로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2월 8만8381가구에 견줘서는 76.2%나 줄었다.

주택 금액별 거래량 증감률도 전년 4월과 비교해 수도권은 △3억~4억원(+41.5%), △4억~6억원(+45.1%)대에서, 지방도 △3억~4억원(+43.1%), △4억~6억원(+58.6%)대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에서 4억~6억원대의 거래가 급증했다는 것은 대형아파트의 거래가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대형아파트의 선전은 분양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전 주택형이 중대형으로 이뤄진 위례신도시의 '래미안', '아이파크', '와이즈', '더샵', '힐스테이트' 모두 1순위에서 10대 1 이상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올 들어 2월에 선보인 '엠코타운 센트로엘'도 중대형 단지임에도 평균 12대 1의 경쟁률과 함께 계약 나흘만에 완판됐다.

대형이 먼저 팔리는 단지도 등장했다. 4월 청약접수를 구월 보금자리지구 한내들 퍼스티지. 청약접수 결과 전용면적 94㎡ 이상 3개 타입이 순위 내 마감됐다. 반면 84㎡ 2개 타입은 순위내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김포 한강센트럴자이도 면적이 가장 큰 100㎡가 3순위 수도권에서 3.12대 1로 마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부산에서 공급된 '센텀 비스타 동원'은 전용면적 109㎡ D타입이 1순위에서 4.63대 1로 청약을 마감했고, E타입도 17대 1을 기록했다. 부산에서 전용 102㎡~135㎡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1000만원짜리 청약통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인기로 평가된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며 중소형만 공급된 탓에 중대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층이 많이 형성된 상태"라며 "다만 면적과 관계없이 청약에 앞서 입지, 분양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

로또복권 제 601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5	17	17	20	34	35	27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액
1등	6개 숫자 일치	1,710,[illegible]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33,051,732
3등	5개 숫자 일치	1,353,843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0561

회장 겸 발행인	남 궁 호
사장 겸 편집인	김 현 비
편 집 국 장	조 인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0-2100
배 자 센 터	02)721-9811

2005년 [illegible] 정기간행물등록 서울특별시 가00096

누구나집

www.nuguna-house.co.kr

청약통장 없어도! 집이 있어도!

대한민국 최초 누구나 집-

인천 도화 서희스타힐스

인천 도화지구 4BL | 59㎡ / 74㎡ 총 520세대

문의 032) 862-9500

(주)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코스피 2000선 안착할까

펀드 환매세 약해져 긍정적… 외인 매수 지속성이 관건

코스피가 2000선 탈환을 시도할 때마다 쏟아졌던 펀드 환매세가 약해지며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사자' 지속이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넷째주(19~23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3.73포인트(0.18%) 올랐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4일 2010.83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에 2010선을 회복한 이후, 지난 주 19일 2015.14까지 오르고서 22일 2015.59, 23일 2017.17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그간 코스피지수가 펀드 환매 물량에 발목을 잡혀 2000선에서 번번이 추가 상승을 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5년간 주식펀드의 환매 행렬은 지수가 오를 때마다 이어져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총 27조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그러나 환매 강도와 자금의 순유출 지속 기간은 점차 약해졌다.

지난 5년간 환매 패턴을 보면 국내주식펀드(ETF 제외)의 자금 순유출 지속 기간은 2009년과 2010년에 10개월 연속에 달했지만 2011년 4개월, 2012년 3개월, 2013년 7개월로 점차 단축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2011년 이후부터는 지수가 1700~2100선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투자자들이 2000선 이상이 될 때마다 반사적으로 환매를 반복했다"며 "그러나 최근 5년간 점차 환매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환매 강도도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에 따르면 지수 상승이 본격화한 올해 3월 이후 환매 물량은 2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 5조9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내외 경제상황이 원활할 경우 코스피가 펀드 환매 부담에서 벗어나 2000선에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 3년간의 박스권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단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더 오르려면 외국인의 추가적인 강한 순매수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6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1조3350억원)가 지수를 끌어올리며 연고점 경신을 이끌었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의 순매도세(9312억원)가 이어지며 지수는 20~21일 하락 마감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사자 행진을 이어가며 지난 22~23일 다시 반등에 성공해 장중 2020선을 뚫고 올랐다. 외국인이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9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보인 것이 지수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됐다. 외국인은 이 기간 총 2조4728억원을 순매수했다. 향후 외국인 수급은 원화 강세에 밀접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노종원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2011년 하반기부터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에 국내 증시에 들어오고 있다"며 "지난 3월 후반 이후 외국인 수급을 보면 반도체 등 선진국 경기회복에 민감한 대형 소비재 업종과 환율 수혜가 있는 내수 업종에 쏠리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희기자 hjkim1@metroseoul.co.kr

e편한세상 옥포 조감도

삼호, 거제 'e편한세상 옥포' 분양

삼호가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옥포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 옥포'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13~25층, 7개동 등 798가구 규모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84㎡A 101가구 ▲84㎡B 70가구 ▲115㎡ 21가구 등 총 192가구가 일반공급된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타운이 형성돼 주거환경이 뛰어나고 남측으로 일부 가구에서 옥포항 조망이 가능하다. 도보권내 국산초교가 있고 거제고, 해성고, 옥포고 등도 인근에 있다. 거제 유일의 영어마을과도 가깝다.

거제대로와 옥포대첩로와 인접해 거제 시내는 물론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 송정IC를 통한 58번 국도, 거가대교 진입이 쉬워 부산, 김해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초 거제대로에서 바로 단지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도 개통됐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장 설계(상가주차 일부 제외)로 보행자의 편의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기존 주차공간보다 폭이 10cm 넓은 광폭주차장을 도입했고, 보도와 차도의 분리 설계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e편한세상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도 적용된다. 이는 입주민이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맞춤형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시스템이다.

내부에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상'을 수상한 'Stylelec' 디자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스위치와 온도조절기 콘센트, 월 패드와 등의 전기 제품군은 기존 직사각형 형태에서 탈피한 정사각형 모양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4㎡A와 115㎡는 4베이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고, 84㎡A와 84㎡B 확장 시 약 7㎡ 규모의 α룸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 초반대로 책정됐고 계약금은 1000만원이다.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6월 5일, 계약은 6월 10~12일까지다.

모델하우스는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거제시 아주동 913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un9800@

은행 가계대출 13년 만에 최저

은행의 총 대출금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집값 하락으로 가계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가계소득도 둔화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돈은 481조1131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1.7%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 가계대출 비중이 35.1%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가계가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며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빚을 내기보다 퇴직 후 은퇴자금으로 창업하길 선호해 자영업자 대출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비중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년 연속 확대돼 지난해 57.2%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코현정기자

현대건설,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 분양

현대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택지지구 40-1블록에서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 952가구를 분양한다.

송담택지지구 내 공급되는 첫 아파트이자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지하 1층~지상 27층 12개동 전용면적 ▲59㎡ 496가구 ▲72㎡ 218가구 ▲84㎡ 238가구로 이뤄졌다.

아파트가 위치한 안중읍은 평택시의 3대 부도심 중 하나로 개발 예정인 곳으로, 향후 평택항·포승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평택 서부권역의 또 다른 주거지인 현화지구와 인접하고, 하나로마트·안중 공용버스터미널 등이 가깝다.

2019년 서해안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단지 인근으로 안중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포승국가산업단지와 평택 중심가를 잇는 38번 국도와 화성시와 아산시로 이어지는 39번 국도의 교차점에 위치해 평택시 전 지역은 물론 광역교통망도 잘 갖추고 있다.

현대건설은 평택 첫 힐스테이트 아파트인 만큼 아파트 주출입구인 문주부터 클래식한 품격이 느껴지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단지 외관에 프랑스 디자이너 장 휘리감를로와 공동 개발한 힐스테이트 아트 컬러를 선보인다.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등의 에너지 절감시스템과 충동 경비시스템, 방범용 저층부 가스배관 커버 등의 안전시스템을 제공해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커뮤니티센터가 마련된다.

전용면적 72㎡와 84㎡는 맞통풍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환풍에 신경을 썼으며 맞춤형 선택평면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학습공간 강화형, 가족공간 강화형 중 계약자가 본인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 침실 이미지

현대건설 관계자는 "송담지구 첫 분양 아파트라는 상징성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를 더해 서평택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2순위, 29일 3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6월 5일, 계약은 11일부터 13일까지다.

모델하우스는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538번지 안중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피파온라인3’ 브라질 월드컵 콘텐츠 넘친다

TV 중계보는 듯한 ‘월드컵 모드’ 플레이
1억8000만원 상금 ‘챔피언십2014’ 개최

넥슨의 인기 온라인게임 '피파온라인 3'가 '월드컵 냄새'가 물씬 나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월드컵 모드 업데이트를 통해 월드컵 분위기를 한껏 조성할 예정이다. 월드컵 기간 적용되는 '월드컵 모드'에는 이번 피파월드컵 공식 색상, 경기 중계화면과 가장 비슷한 형태로 게임 내 UI를 구성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마치 TV 중계화면을 보는 듯한 사실성을 부각시켰다.

또 유저들이 월드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12개의 피파월드컵 경기장, 203개국 7000여명의 국가대표선수, PVP 월드컵 16강 토너먼트, '피파월드컵 대회'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즐거움을 배가할 예정이다.

'PVP 월드컵 16강 토너먼트'는 16명의 유저들이 게임 내 피파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펼치는 1대1 대전모드이며, '피파월드컵 대회'는 다양한 국가대표팀을 선택해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2014 피파월드컵과 동일한 일정으로 인공지능(AI) 상대와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싱글모드다.

이밖에도 월드컵 기간 중 피파온라인 3 홈페이지에서 '피파월드컵 마블' 이벤트를 진행해 경기를 플레이 할 때마다 획득할 수 있는 주사위를 굴려 해당 말판에 도착하면 시뮬레이션권, 월에 포함 13베스트 200, 선수 경험치 이전권(50%) 등 다양한 아이템을 준다.

◆안정환·홍명보 레전드 플레이

아울러 넥슨은 월드컵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달 '전설 2002 선수' 콘텐츠를 업데이트해 2002 피파월드컵 당시 주역들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안정환, 박지성, 홍명보를 주제로 한 지상파 TV광고를 제작해 2002년 월드컵 당시 영광의 순간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2002년 대회를 포함해 월드컵에서 기록한 3골 중 2골을 역전골로 만든 해결사 안정환은 '피파온라인 3'의 '2002년 전설' 20인 중 최고의 스탯(능력치) 평균치를 자랑한다.

당시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AC페루자)와 대표팀을 오가며 보여준 활약상이 반영돼 공격력을 좌우하는 능력치 대부분이 8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골 결정력'과 '슛 파워'는 각각 88과 85로, 게임에서만큼은 현존하는 최고의 축구스타 호날두와 메시보다도 월등하다. 또한 점프 능력이 90을 상회해 월드컵에서 미국과 이탈리아를 상대로 기록한 그림 같은 헤딩슛을 '피파온라인 3'에서도 쉽게 재현해낼 수 있다.

게임 내 홍명보의 기량도 무시무시하다. 홍명보가 세계적인 수비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의 맥을 읽고 차단하는 능력뿐 아니라 중원에서부터 공격진에게 한 번에 뿌려주는 '택배 크로스' 덕이었다.

'피파온라인 3'에서도 그의 장기가 반영돼 게임 속 홍명보의 패스 능력치는 수비수임에도 모두 85라는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의 최고의 패서 중 한 명인 미드필더 피를로의 게임 내 기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태클', '가로채기', '대인수비', '적극성' 등 전반적인 수비 능력치가 90에 가깝다. '골 결정력', '중거리슛' 등 슛 관련 능력치도 대부분 70 이상이어서 리베로 외에 CDM(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CM(중앙 미드필더)과 같은 다소 전진적인 포지션에 배치해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넥슨이 온라인 예선을 진행 중인 '챔피언십 2014'는 총상금 1억 7900만원 규모의 공식 대회다. 6월 19일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넥슨 아레나'에서 막을 올려 월드컵 시즌 유저들의 흥을 돋굴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모바일게임 챔피언 “아직도 배고프다”

CJ넷마블 ‘런닝몬’ ‘드래곤가드’ 추가 출시로 차별화 나서
‘다함께 나이샷’ ‘마구마구 Live’ 등 스포츠 3종 출시 예고

'모두의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세븐나이츠' 등 기존작들의 인기가 여전한 CJ E&M 넷마블이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신작 라인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최근 가장 먼저 이용자들에게 첫선을 보인 게임은 지난 23일 출시한 액션 러닝 게임 '런닝몬'과 대작 MMORPG '드래곤가드'다.

두 게임 모두 기존 장르의 재미에 새로운 요소를 더해 차별성을 두고 있어 이용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런닝몬'은 개성 넘치는 캐릭터, 귀여운 펫과 함께 뛰고, 날고, 슬라이딩하며 질주하는 액션 러닝 게임이다. 다양한 장애물과 악당이 등장해 짜릿한 질주와 액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드래곤가드'는 고품질의 그래픽, 실시간 진영 전투, 국내 최초 실시간 무한필드 이용자간 대결 등 모바일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압도적 규모의 게임성과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평을 듣고 있다.

CJ 넷마블은 캐주얼 골프게임 '다함께 나이샷', 실시간 실사야구게임 '마구마구Live', 캐주얼 축구게임 '차구차구 모바일' 등 스포츠 신작 3종 출시를 예고하며 스포츠게임 명가로 확고한 자리매김에도 나선다.

특히 이번 스포츠게임 3종 모두 '마구마구'의 개발사 애니파크의 모바일 신작이라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중 가장 먼저 공개가 예정된 '다함께 나이샷'은 화사한 그래픽과 간단한 조작법으로 통쾌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현했다. 단계별 미션에 도전하는 스테이지, 9개 홀을 연이어 공략하는 방식의 대회에 참가하는 9홀 라운딩, 최대 4인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승부를 겨루는 대결 라운딩 모드 등을 제공한다.

'마구마구Live'는 최고의 그래픽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간편한 플레이 방식이 독장한 실사 야구게임이다.

이 게임은 국내 9개 구단의 선수와 구장, KBO 규칙 등 기본적인 야구게임 요소에 △선수들의 땀방울까지 포착하는 극사실적인 비주얼 △카카오톡 최초의 실시간 대전 △투수·타자간의 수 싸움 등 차별화된 즐거움을 가미해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축구게임 '차구차구'는 싱글리그, 배틀리그, 다양한 캐릭터와 대결하는 스테이지 형식의 스페셜리그, 리듬게임과 유사한 형식의 미니게임 등 총 4가지의 게임 모드를 제공한다.

특히 '차구차구'는 쉬운 룰과 간편한 조작법이 특징인 캐주얼 축구 게임이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에 등재된 2000여명의 실제 선수를 SD캐릭터 특유의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기존 축구게임이 주지 못했던 이기지 기반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성훈기자

건설사의 경쟁업체는 금융사?

뉴스룸에서
김두탁
<경제산업부차장>

연초 뜨겁게 달아오르던 아파트 청약 인기가 주춤해지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에 미분양 주의보라는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아파트 분양이 줄을 이으면서 분양가가 싸거나 입지여건이 뛰어난 아파트는 초기 계약률이 90%에 이르는 등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높거나 기존 단지보다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곳은 청약 미달로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대구 지방시장은 아직 청약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요층이 그리 많지 않은 수도권은 계속해서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짐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미분양 물량도 조만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최근의 미분양 증가 문제보다 건설사들은 또 다른 경쟁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경쟁사는 또 다른 건설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엔 금융업계가 오히려 새로운 경쟁상대(?)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금융권 관계자들의 강연이나 언론사 칼럼 기고문 등에 재테크로서의 주택 투자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집을 사고 팔아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으로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나 기타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려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재테크 분위기가 달가울 것이 없는 것이다. 수요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고객에게 재테크 상담을 할 때 주택 투자는 뒷전이고 다른 분야의 재테크 상품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며 "특히 내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딱히 건설사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의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과 노력이 이어지며 조금씩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내 집 수요층은 점점 줄어들고 재테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현실을 건설사들이 어떻게 돌파해 갈지 주목된다.

야당은 지금 정치적 공세를 펼 때인가?

정론탁설
유병팔
<언론인>

'4·16 세월호 참사'로 잠시 잠잠했던 야당의 주요 인사들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세를 감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선 때 박근혜대통령과 민주당후보로 경쟁했던 문재인 의원은 최근 세월호 사태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16일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이어 18일에는 광주광역시 5·18민주묘역을 찾아 "광주민주항쟁을 일으켰던 국가와 세월호 참사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국가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비판한바 있다.

또한 국회의원을 두 번씩이나 하고 노무현 정부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씨도 지난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유 씨는 지난 2월 "작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고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자신의 입지를 키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가리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 감옥 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내용을 정의당이 6·4 지방선거 홍보용으로 공개한 정치토크쇼 동영상에 올렸다. 물론 "불행히도"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공격한 셈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의 주요 인사들도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를 준비나 한 듯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비록 완곡한 표현이기는 하나 "대통령 담화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우려한 길단이 아니었나"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선거를 통해 경고해야 한다"면서 다분히 세월호 참사를 선거 전략으로 삼는 발언을 했다. 또한 민병두 선대위 공보단장은 "관피아가 아니라 박피아(박 대통령 마피아)부터 척결해야 한다"고 정치적 공세를 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는 정치적 득실을 떠나 과연 바람직한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현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크다. 그러나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 역시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들은 초당적 협력으로 난국을 수습해주길 바라고 있다. 야당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국민정서를 외면하는 듯하다.

포토프리즘 노심(老心)은 어디로?

2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벽골공원 주차장에 붙어있는 6·4 지방선거 벽보를 동네 주민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과 함께 벽에 붙은 선거벽보가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오심에 얼룩진 프로야구

기자수첩
양성운
<멘테스포츠부 기자>

프로야구가 끊임없는 오심으로 멍을 앓았다. 팬들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다.

올 시즌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하루가 멀게 오심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급기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비디오 판독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시즌 오심으로 관중이 급감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B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잦은 오심이 나오고 있다. 잘못된 판정으로 문제가 될 경우 오심을 저지른 심판은 출장 정지 또는 제재금과 경고만 받으면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하지만 올 시즌을 위해 겨우내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치명적이다. 선수들이 실력으로 점수를 내준 경우 실수하지 않기 위한 욕심이 생기지만 심판의 성급한 판단으로 점수를 내준 경우 팀 조직력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결국 잦은 오심으로 선수들은 '멘붕' 상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경기 후 오심으로 밝혀지더라도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다.

유독 오심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한화 김응용 감독은 참다못해 최근 심판진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올 시즌 첫 감독 퇴장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말았다. 이는 팬들도 느끼고 있다. 최근 경기 도중 관중이 그라운드로 난입해 오심을 저지른 심판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KBO는 실동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선수단과 심판진의 마찰을 줄이고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는 방안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그러면 팬들도 자연스럽게 경기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횃불을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닐 디그래스 타이슨이 요즈음 한창 주목받는다. 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새로 제작한 <코스모스>의 진행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직업은 "과학 해설자(Science communicator)"다. 우주의 생성과 구조, 그 움직임에 대해 일반대중들에게 쉽고 소상하게 일러주는 역할이다. 그는 천체 물리학자이자 과학소설 작가이기도 하며 무려 19개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소개 영상에 등장해서 더욱 유명해진 이 프로는 1980년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제작, 진행해 최고의 인기를 모은 <코스모스>의 21세기 판이다. 오바마는 "우리의 첨단 과학의 성취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라면서 이 방송의 의미를 강조한다. 타이슨 역시 과학이란 전 세대의 스승이 다음 세대의 제자에게 지식의 횃불을 전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타이슨은 17세 때 코넬 대학에 있는 칼 세이건을 만나 그의 책 <코스모스> 첫 장에 "미래의 천문학자"라는 친필서명을 받는다. 1975년 세이건의 수첩에는 뉴욕 브롱스 과학고 출신의 이 총명한 흑인 소년을 만나는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코스모스> 1편 도입부에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타이슨의 가방에서 그 수첩이 공개되는 장면이 나온다. 40년 전 한 소년의 장래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

<코스모스> 11편에는 전자기가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과학기술의 결정적 이론을 세운 마이클 패러데이가 등장한다. 대장장이의 아들로 불우한 소년시절을 지냈던 그가 이후 영국 왕립연구소에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한 금요 강연을 연 것은 19세기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는 전통이다. 칼 세이건이 이 강의의 강사로 나선 것은 물론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과학자의 꿈을 꾸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지식의 횃불을 전수하는 훌륭한 전통을 세운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어느새 양극화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런 식의 노력은 아예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바라 일겠는가? 가난하지만 재능 있고 총명한 아이를 속에 미래의 뉴턴, 아인슈타인, DNA하면 떠오르는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 그리고 칼 세이건, 닐 디그래스 타이슨 등이 있을지 말이다. 교육의 양극화를 교정하지 않는 사회는 지식의 첨단을 잡아가는 능력을 스스로 해체하는 곳이다.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훈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청첩장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인맥이나 남의 손에 의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있냐고 했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벌써 나이가 바뀌고 계획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왕이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검색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니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관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년)(키덴딧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시스템이 있다. 1:1 위주의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력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어련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희망, 대한노인회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대한노인회 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 대상 인공관절 수술 후원캠페인 전개
전화·우편·이메일로 본인 혹은 대리인 신청 가능

#전남 순천에 홀로 살고 있는 최옥자(70)씨는 고민 끝에 대한노인회에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신청서를 보냈다.

최씨는 10년이 넘게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았고 최근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의사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다.

극심한 통증에 우울한 날을 보내던 최씨는 우연히 저소득층 노인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해준다는 기사를 읽게 됐다.

최씨는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전개하는 인공관절 캠페인 신청서를 작성했다.

퇴행성관절염은 중·노년층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질환이다. 특히 중년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남성에 비해 대퇴근력이 약해 무릎 불안정성이 많이 나타나며 쪼그려 앉으면서 걸레질을 하는 등 가사일로 무릎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퇴행성관절염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해 질환이 말기까지 진행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나, 인공관절 수술은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 대신 인공관절을 이식함으로써 통증을 줄이고 무릎 기능의 회복을 돕는 치료법이다. 수술을 통해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통증이 호전되고 무릎 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용 높은 인공관절 수술 저소득층 환자에겐 부담

문제는 인공관절 수술이 관절을 이식하는 큰 수술인 만큼 비용이 높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한쪽 무릎을 수술받을 경우 환자의 부담 비용은 250만~300만원 정도이며 양 무릎을 수술받으면 대략 600만~700만원이 든다. 또 검사비와 수술 후 입원비, 간병비가 추가로 든다.

이처럼 결코 저렴하지 않은 치료비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퇴행성관절염 말기의 노인 가운데 약 80%가 비용부담으로 질환을 방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노인회,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 위해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전개

이에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퇴행성관절염 노인들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캠페인 대상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1종, 차상위계층)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다.

나병기 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단장은 "노인 대다수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노인이 치료를 받고 건강해진 무릎으로 삶의 희망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을 주최·주관하는 대한노인회는 1969년에 설립돼 약 300만 명의 회원을 총괄하는 사단법인이다.

이 단체는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노인생활 소식지 발간 사업 ▲노인취업 지원본부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재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캠페인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전화 및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해도 된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퇴행성관절염 환자 대한노인회(245개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화: 1661-6595(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 우편: 서울시 서초구 범백로 43(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담당자 앞'
- 이메일: ok6585@naver.com(캠페인 담당자)

대학병원, 다양한 건강강좌 마련

중앙대병원, 레드튤립 강좌

대학병원이 다양한 건강강좌를 마련했다.

먼저 서울대간호대학이 휠니스휴먼케어사업단과 함께 26일 오후 7시 무료 지식나눔 강좌 '통합의학 전문의와 함께하는 디톡스 콘서트: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기'를 연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 몸에 독이 쌓인다'에서 4주간의 해독 프로그램 '더비움'을 통해 해독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했던 통합의학 전문의 강승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와 정양수 꽃마을 통합검진센터 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중앙대병원은 오는 28일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기분 변화, 알고 보면 조울병입니다'라는 주제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레드튤립(Red Tulip) 클럽'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별도 사전 접수 없이 질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이화의료원, 여성암 건강강좌 개최

27일 서울 양재동aT센터서

이화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암엑스포에서 여성암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이날 오후 1시 '자궁경부암과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의 부인암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법'을 주제로 한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김윤환 교수의 '부인암 예방, 어떻게 해야 하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서현석 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유방암, 가슴 가질 수 있어요'란 제목으로 여성의 상징인 유방을 잃어버린 환자에게 유방을 다시 찾아주는 최신 수술법에 대한 강의가 계획돼 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MBN 매경헬스가 주최하는 제5회 국제암엑스포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식과 소통으로 암 정복'을 주제로 26일과 27일 이틀간 열린다.

/김학철기자 kimcl@[illegible]

'아는 것이 약입니다'…캠페인 전개

한국존슨앤드존슨, 올바른 복용 상식 소개

세월이 갈수록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과 안위에 더욱 마음을 쓰게 된다. 또 나이든 부모님이 복용하는 약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녀들의 걱정도 커진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아는 것이 약입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부모와 함께 알아야할 약 복용 상식을 소개한다.

◆복용 전 의 약사와 상담

먼저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의 약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중년 이상이 되면 소화기능은 물론 약물 흡수력도 저하되며 젊은층에 비해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들은 같은 약물을 복용해도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약국이나 병원에 갈 때는 ▲흡연·음주 등의 건강상태 ▲신체 이상 증상 및 질환 치료 경력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 등을 미리 확인하고 상담 시 의·약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고령자일수록 약을 많이 복용하는데 약의 복용 간격과 시간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평소 부모가 복용하는 약의 복용 방법과 복용 시간을 숙지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치은염·근육염·타박상 등 염증을 동반하는 통증에 복용하는 소염진통제는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두통·치통·근육통처럼 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통증에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관절통·요통 등 자주 고통을 호소하는 통증에는 약 성분이 서서히 방출돼 장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서방형 진통제를 준비하고 알약은 음료수가 아닌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이전에 처방 받은 감기약을 나중에 다시 복용하거나 언제 구입한 지도 모르는 오래된 약을 무심코 먹는 노인들도 많은데 자식들이 이를 방지해야 한다.

개봉한 약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점차 효과가 줄어들고 사용 기한이 지난 약은 복용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다. 또 약을 보관할 때는 약의 성분이나 제형에 따라 보관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황재용기자

지긋지긋한 허리·목디스크, 진화된 고주파 치료로 10분이면 끝

환자 증상·질환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후 맞춤형 치료 실시

유명 여배우의 아버지 S씨는 어느 날 아침 양말을 신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기면서 오른쪽 다리 당김 및 통증이 발생해 집 근처 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S씨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으며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 하지만 수술이 무섭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S씨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런닝맨에 출연 중인 방송인 G씨의 소개로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방문했다.

이승주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S씨의 상태를 진단하고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국내 유명 연예인과 세계인들이 주로 치료받았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S씨는 치료 당일 퇴원했으며 상태는 곧바로 호전됐다.

또 최근 불후의 명곡 및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가 된 보컬 가수 휘성은 군 복무 중 악화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다 제대 후 방송활동 재기를 위해 강남조이스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이 원장은 S씨를 치료했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휘성을 치료했으며 휘성은 현재 방송에 복귀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런닝맨에서 활동 중인 가수 김종국과 개리도 휘성과 비슷한 증상으로

이승주(왼쪽)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배우 이종수.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도 현재 무리 없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3년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강남조이스병원이 시행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국소마취하에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하는 시술이다.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증상·질환에 따른 맞춤형 치료 실시

수많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치료받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한다. 진단 후 초·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를 간단히 신경주사로 치료한다.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또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 환자는 강남조이스병원의 대표적인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치료받는다.

이와 함께 강남조이스병원은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와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 계개화했다.

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근육,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로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인근에 목·허리·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 다리·측만증 등) 전문치료클리닉과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황재용기자 hsyuo93@metroseoul.co.kr

안녕히들 주무시고 계십니까?

'엎드려 자는 자세' 척추 건강에 치명적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다. 하지만 잘못된 수면 습관은 오히려 척추에 무리를 주고 목·어깨 등 관절에 통증을 유발한다.

먼저 엎드려 자는 자세는 척추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자세로 꼽힌다. 엎드려 자게 되면 엉덩이와 등뼈가 하늘로 치솟고 허리가 들어가게 돼 허리에 굴곡이 생긴다. 척추에 변형이 일어나기 쉽고 목과 어깨에 힘이 가해져 근육을 굳게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엎드린 자세에서는 목을 옆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는 목 비틀림으로 인한 인대 손상과 목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옆으로 누워 웅크리고 자는 '새우잠' 자세를 취한다. 이 자세는 C자 형태로 등이 구부러지면서 척추와 근육의 배열을 한쪽으로만 휘게 만든다. 실제로 새우잠을 잘 때 허리 근육이 느끼는 피로감은 바른 자세로 누워 잘 때보다 3배 이상 많다.

이와 함께 푹신한 소파에 기울거나 잠을 자는 소파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TV를 켜고 그대로 소파에 누워 잠드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TV를 보기 위해 옆으로 반쯤 누워 턱을 괴는 자세도 위험하다. 소파에서의 이런 습관은 청소년들에게 척추측만증과 턱관절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하도현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은 "엎드려 자는 자세 등 잘못된 수면 자세로 발생하는 허리 질환은 숙면을 방해하는데 이 때문에 피로감이 가중되면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오랜 시간 자거나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누적되고 척추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yuo93@metroseoul.co.kr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캠페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뺏어 말어?'를 주제로 정신 건강 캠페인을 전국에서 진행한다.

캠페인은 ▲스마트폰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유발하는 심리 사회적 요인과 뇌의 기전 ▲부모의 자녀 스마트폰 사용 지도법 등에 대한 강연으로 구성된다.

이정석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스마트폰은 위급 시 안전을 지켜주는 유익한 도구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임상 현장에서는 게임이나 SNS 중독, 유해 콘텐츠 노출, ADHD 증상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 등 스마트폰 사용의 다양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강연은 전국 110여 개 지역에서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무료로 진행한다.

/황재용기자

한독,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선정

한독(회장 김영진)이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청이 2017년까지 세계적인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독은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과 관절염 치료제 '케토톱'의 해외 수출 실적, 차세대 성장 호르몬(GX-H9) 해외 임상시험 추진 등을 높게 평가받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연구회 등 20개 기관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지난 60년간 한독은 앞장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독으로 성장하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재용기자

야구장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아이론 사용해 자연스러운 컬 연출 멋져

야외 활동 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며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야구장 응원을 제대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야구장 패션과 스타일링에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머리의 경우 간단한 연출법으로 원하는 분위기로 변신할 수 있어 야구장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헤어 브랜드 TMW의 박은하 강사는 "모자를 쓰고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포니테일이나 머리띠로 포인트를 준 컬 헤어를 추천한다"며 "브러시 형태의 아이론을 사용하면 쉽게 스타일링 할 수 있고 휴대하기 편리한 미니 사이즈 아이론을 야구장에 챙겨가도 좋다"고 소언했다.

◆캡모자에는 발랄한 포니테일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야구장에서 캡모자는 필수 아이템이다. 캡모자를 착용해도 헝클어짐 없이 스타일리시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포니테일이 제격이다. 먼저 머리를 묶기 전에 풍성한 웨이브를 넣어주면 더 발랄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풍성한 웨이브를 위해 모발 전체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아이론을 이용해 모발 끝 부분부터 두세 번 정도 돌돌 말아 컬을 만든다. 보다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위해 쿠션 브러시로 여러 번 빗고 컬링 크림을 바른 후 머리카락을 가르마 없이 포니테일로 묶어준다.

◆응원 머리띠에는 아웃컬 스타일

모발 끝이 바깥쪽으로 뻗지도록 연출하는 아웃컬과 응원 머리띠로 포인트를 준 헤어스타일은 상큼한 매력을 강조할 수 있다. 모발의 섹션을 나눈 뒤 아이론을 사용해 모발 끝이 바깥쪽으로 뻗지도록 한 바퀴 말아 웨이브를 만든다. 이때 더욱 확실한 컬링을 위해 두세 번 정도 반복해 말아주는 것이 포인트다. 앞머리가 있는 경우 갈라짐 방지와 볼륨을 위해 미니 고데기를 활용해 마무리한다.

◆짧은 머리는 여성스러운 매력 높여

청순함과 여성스러운 매력을 높여주는 짧은 머리 스타일은 머리를 말기 전 먼저 웨이브를 만들어주면 더욱 볼륨 있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연출된다. 아이론을 이용해 모발 전체적으로 앞·뒤 번갈아 말아 컬을 연출한 뒤 세 가닥으로 나눠 양 갈래 혹은 한쪽으로 느슨하게 땋는다. 모발을 과대한 느슨하게 땋아주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모발을 살짝살짝 빼내 잔머리를 만들어 주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강조할 수 있다.

/안해은기자 bluret404@metroseoul.co.kr

일본 도호쿠 여행

일본 도호쿠 지역 공식 페이스북 오픈

한국인 관광객에게 적합한 정보 제공

일본 도호쿠 운수국과 도호쿠 관광추진기구는 도호쿠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목적으로 한 'VISIT JAPAN 지방연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tohokukankokr)를 개설했다.

이 페이스북에는 도호쿠의 유명 온천과 음식·축제·경치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스키 리조트와 골프 코스, 등산 코스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직접 취재를 다니며 최신 정보부터 숨겨진 명소까지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다양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3년 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태평양 연안 지역의 철도선도 대부분 복구돼 관광을 할 수 있다고 도호쿠 관광추진기구 측은 전했다.

/유재상기자

아디다스 '락스타 서울 볼더링 대회' 25일 남산에서 열린 '아디다스 락스타 서울 볼더링 대회'에서 세계적인 클라이머 샤샤 디줄리안(왼쪽)이 국내 랭킹 1위 민현빈 선수와 볼더링 대결을 펼쳤다. /아디다스코리아 제공

데미소다, 'It's Demistyle' 클럽파티

클럽 옥타곤에서 칵테일 파티 성료

동아오츠카(대표이원희)의 데미소다는 지난 23일 강남 클럽 옥타곤에서 칵테일 파티 'It's Demistyle'을 열었다.

20대의 일상 'It's Demistyle'을 콘셉트로 한 이번 파티에서는 데미소다 애플·레몬·오렌지 등 3종과 보드카로 만든 칵테일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다양한 레시피를 선보였다.

특히 DJ 이하늘을 비롯한 10여 명의 DJ와 댄스팀의 공연이 이어지며 아이돌그룹 GI의 축하공연도 마련됐다. 이 파티는 이번 옥타곤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젊음의 장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한편 데미소다는 지난 21일 서바이벌 댄스대회 '아이돌 댄스대회 D-STYLE'의 최종 우승자 세용(마이네임)과 원캣(GI)을 메인모델로 발탁했다.

/장해기기자

It's Demistyle
05.23
DJ 하늘

발·다리 특징에 맞는 신발 고르세요

통통한 종아리엔 착시효과를, 짧은 다리엔 로퍼로 경쾌하게

연일 무더운 날씨에 옷차림과 함께 신발도 한결 가벼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신발 선택 시 자신의 발이나 다리 체형에 맞는 슈즈를 골라 스타일과 함께 바제 건강도 챙기라고 조언한다.

종아리가 통통하다면 피부색과 비슷한 아이보리나 연한 핑크 색상의 발등이 살짝 보이는 오픈토 슈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착시효과를 일으켜 다리와 이어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날씬하면서도 다리가 길어 보이게 된다.

이와 함께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A라인 원피스를 입으면 더욱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높은 굽의 하이힐은 신으면 다리에 힘을 주게 되고 이 때문에 다리 근육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이럴 때는 굵은 일자형 굽의 슈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쿠션감 있는 기능성 슈즈를 선택해 종아리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볼이 넓으면 샌들류나 하이힐을 신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발 전체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스트랩이 적용된 글래디에이터 슈즈가 제격이다. 이 신발은 안정감있게 발목을 잡아줘 다칠 염려가 적지만 스트랩 면적이 넓은 제품은 발목과 종아리를 분리시켜 자칫 다리를 더 굵게 보이게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리가 짧은 편이라면 자연스러운 로퍼로 경쾌한 느낌을 살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로퍼는 신고 벗기 편하고 발등이 시원하게 드러나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학철기자 kimc1@

"핸드드립 커피, 쉬우면서도 어렵네요"

메트로신문이 국내 최대 커피 유통 전문 브랜드 아라운지(ArounZ)와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 마련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세미나'가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아라운지 선유도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제 종류의 다른 원두를 테이스팅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원두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원두를 이용해 직접 핸드드립을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사로 나선 아라운지 소속 박상욱 바리스타는 2012·2013 WBC 국가대표 바리스타 선발전 3위에 입상한 실력과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드립커피에 대해 설명해 호평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핸드드립 실습을 통해 각자 추출한 드립커피를 서로 나눠 마시며 서로의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같은 원두와 장비를 사용해서 추출한 커피지만 모두 다른 맛을 내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줬다.

/정의철기자 pimes@

BACK TO THE 90's
청춘나이트
2014

데뷔 2년 첫 단독 콘서트 엑소

그룹 엑소가 4만 2000여 명의 국내외 팬들의 마음을 녹였다.

한국과 중국을 넘어 아시아 대세임을 입증했다. 크리스 사태로 인해 11명의 멤버들이 공연을 새롭게 만들었지만 그의 빈자리는 찾을 수 없었다. 열주일 만에 만들어낸 기적이다. 덕분에 각종 루머로 나뉘었던 팬들의 마음도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 엑소는 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사흘간 이어온 첫 단독콘서트 '엑소 프롬 엑소 플래닛'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 '비온 뒤 땅이 굳는다'

엑소 크리스가 지난 15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 크리스의 돌발행동은 멤버들의 심적고통은 물론 첫 콘서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졌다. 엑소는 25일 콘서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크리스 사태 이후 "멤버들이 더 단단하게 뭉치게 됐다"고 말했다.

리더 수호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제일 컸다. 우리 멤버들 모두 심적·육체적으로 콘서트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단합해 콘서트를 준비하고 팀워크를 다졌다"고 말했다.

첸은 "'비온 뒤 땅이 단단하게 굳는다'는 말처럼 이번 일 이후 우리 멤버 모두가 더욱 단단해졌다"고 강조했다. 레이는 "기본적으로 너무 상처받고 실망한 점이 있었다. 많은 엑소 팬들이 이상한 루머로 인해 편을 가르는 일이 있었고 팬들 사이에도 오해가 생겨서 속상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이 하나의 엑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타오는 "인기보다 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엑소는 11명으로 활동하며 아시아 1등을 넘어 세계 1등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11명 개인무대 볼거리 다양

엑소의 단독 콘서트는 뜨거웠다. 회당 1만 4000명 규모로 총 4만 2000명이 관람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은 11명의 히어로가 들어온 느낌이었다. 팬들은 멤버들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에 열광했다. 엑소를 상징하는 펄색 야광봉은 흔들었고 이 모습은 밤하늘 은하수처럼 아름다운 물결을 이뤘다.

이날 엑소는 정규 1집 수록곡 '히마'와 '빛아웃 더 비스트'로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늑대와 미녀' '으르렁' '중독' 등 히트곡들은 물론 앨범 수록곡 무대를 선보이며 총 31곡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시했다.

이들은 엑소 로고를 형상화한 초대형 무대를 누비며 관객들과 호흡했다. 또 와이어와 레이저, 4개의 스크린, 곡예사들의 퍼포먼스 등 화려한 무대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멤버들의 개인 무대는 압권이었다. 오랫동안 준비한 공연인 만큼 멤버 개개인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자작곡부터 비트 박스, 악기 연주, 퍼포먼스까지 다양했다.

레이는 데뷔 후 처음 공개하는 신곡 '아임 레이' 무대를 공개했다. 순수한 매력이 강점인 그는 이번 무대에서 강렬한 퍼포먼스로 반전 매력을 과시했다. 찬열은 콘서트에서 처음 공개하는 '딜라이트'의 드럼 연주를 선보였다. 백현은 겨울 스페셜 앨범 '12월의 기적'의 수록곡 '마이 단 투 크라이'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노래부르는 무대를 연출했다.

세훈은 비트 박스 퍼포먼스를 공개했으며, 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 무대를 선사했다. 타오는 스턴트맨들과 합을 맞춰서 무술(우슈)을, 루한은 노래와 춤을 함께 선보였다. 디오는 미니앨범 수록곡 '왓 이즈 러브'를 편곡해서 불렀으며, 수호는 '뷰티풀'을 솔로로 소화했다. 또 첸은 콘서트에서는 처음 공개하는 록 장르의 노래 '업 라이징' 무대를, 시우민은 귀여우면서 섹시함이 느껴지는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대세 입증 아시아 점령나서

엑소는 첫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기록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콘서트 티켓 예매 1.47초 만에 전석 매진 기록에 이어 25일 공연장 인근에는 1만 4000명의 티켓을 소지한 팬들과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는 3600명의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열기가 과열되자 현장에는 이례적으로 콘서트 실황을 외부에 중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엑소 소속사 관계자는 "3000명이나 몰렸지만 현장 구매는 어렵다. 취소 티켓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들을 배려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외부에서도 콘서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0곡까지는 팬들에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엑소는 서울 공연을 마친 후 다음 달 1~2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를 이어간다. 이후 중국 각 도시,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성문기자 yaw@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아시아 넘어 세계 무대 겨냥
4만 2000팬 몰려 대세돌 입증
콘서트 실황 중계까지 이어져

신시 연극시리즈
• 문화가 있는 날 특별할인 40%
(6/25(수) 8시 공연 예매 시 적용)
• 평일 낮공연 할인 30%
(목요일 3시공연 예매 시 적용)
"엄마를 잃어버린지 일주일째다..."
연극
엄마를 부탁해
6.7~6.29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출연 손숙 전무송 예지원 박윤희 전익령 조주현 김희정 이동근 황현정 장선우 이상민 경의균 조국희 김다영
주최 신시컴퍼니 CJ E&M 후원 예술의전당

아이돌 없으니 빈 틈 없다

정통 배우 열연… '빅맨' '골든크로스' 완성도 높여

정통 배우들만 출연하는 드라마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KBS2 월화극 '빅맨'과 KBS2 수목극 '골든 크로스'는 배우들의 호연으로 보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드라마에 아이돌이 출연하는 게 다반사인 최근 경향과 상반된다.

'빅맨'은 출연진의 다양한 감정연기로 가득하다. 좋은 평가는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8회(20일) 방송 시청률은 월화극 경쟁작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해 2위를 차지했다.

강지환은 코믹과 분노를 넘나들며 최다니엘은 안경에 가려진 서늘한 눈빛과 날카로운 대사 처리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다.

엄효섭·차화연·송옥숙 등 중견 연기자들은 극의 완급을 조절한다. 강동석의 부모인 강성욱(엄효섭)·최윤정(차화연)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김지혁(강지환)의 가짜 부모 행세를 하는 연기가 웃음을 자아내며 미워할 수 없는 역할 콤비로 활약하고 있다.

홍달숙(송옥숙)은 고아로 자란 김지혁을 가슴으로 키운 엄마다. 강성욱·최윤정의 계략으로 현성유통 사장이 돼 혼란을 겪는 김지혁에게 조언하며 따뜻함을 자아낸다.

'골든 크로스'는 연기파 배우의 향연으로 악과 선의 구분조차 모호하다. 악역을 응원하는 시청자가 있을 정도로 실감나는 연기를 하고 있다.

김강우는 권력에 의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복수를 다짐한 강도윤으로 분했다. 복수를 위해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변신했다. 악의 축인 서동하(정보석) 금융정책 국장에겐 섬뜩한 눈빛을 보낸다. 그의 딸인 서이레(이시영) 검사에겐 의도적으로 접근해 거짓 사랑을 하고 있다. 서동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연민을 향한 설레는 표정이 인상적이다.

극중 정보석은 이중성의 표본이다. 다정한 아빠지만 그의 실체는 신인 여배우 스폰서이며 살인까지 주도면밀하게 은폐한다. 엄기준은 작품에서 몇백 조 단위의 돈을 다루는 바이럴 장을 연기한다. 징난스러운 캐릭터지만 불법적인 합병과 탈세, 여론 조작 등을 통해 한국경제를 흔드는 악의 실체다. 천진난만한 미소와 악행이 어우러져 복합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KBS2 월화극 '빅맨' 최다니엘 /KBS 제공 KBS2 수목극 '골든 크로스' 김강우 /펀 엔터테인먼트 제공

카라, 새 멤버 영입 논란 해명

"믿어달라" 눈물 호소에 팬 응원

그룹 카라(박규리·한승연·구하라)가 팬 미팅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멤버였던 니콜과 강지영의 탈퇴 후 약 4개월 만이다.

카라는 지난 24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린 '2014 카밀리아 데이'에서 팬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리더 박규리는 "우리 셋을 믿어주면 좋겠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승연은 "여러분이 속상해 하는 것을 보면서 고민했다"며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진심을 전했다. 구하라도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구구절절 얘기 하지 않아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카라의 팬들은 최근 카라가 방송을 통한 공개 오디션으로 새 멤버를 영입한다고 밝히자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팬들은 멤버들의 솔직한 심경에 "울지마"를 연호하며 박수로 응원했다. 이날 팬미팅에선 근황 토크와 각종 이벤트, 세 멤버의 개별 무대와 히트곡 스텝 무대 등을 선보였다.

'2014 카밀리아데이 팬 미팅'은 카라 멤버들이 팬클럽 카밀리아를 위해 2011년 지정한 기념일이다. 매년 여는 이 행사는 올해 한국을 비롯해 내달 1일 일본 부도칸에서 진행된다.

/전효진기자

'대한민국 이문세' 해외 공연

캐나다·미국·호주 무대

가수 이문세가 캐나다·미국·호주에서 단독 콘서트 '대한민국 이문세'를 개최한다.

이문세는 다음달 캐나다 토론토를 시작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저지, 호주 시드니 등 3개국 4개 도시에서 공연한다. 지난해 6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5만 관객을 불러모으며 성대하게 막을 올린 '대한민국 이문세'는 지난 17일 잠실종합운동장 내 야외 공연장과 23일 강원도 원주 따뚜공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열며 막을 내렸다.

이문세는 이번 공연에서 애국가를 지휘하며 무대에 올라 '붉은 노을' '소녀' '난 아직 모르잖아요' '사랑이 지나가면' '옛사랑' '광화문 연가' 등 20여 곡의 히트곡을 선사한다.

공연기획사 무붕은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온 이문세 콘서트의 해외 공연 요청이 쇄도해 올 상반기까지 투어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미 이문세는 '2011 붉은노을'의 해외 투어를 통해 현지 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

2NE1·포미닛 해외무대 흔들

말레이시아·스페인서 콘서트 성황

대표 동기인 포미닛과 2NE1이 스페인과 말레이시아의 주말 밤을 K-팝 열기로 가득 채웠다.

포미닛은 스페인에서 유럽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24일 바르셀로나에서 '2014 포미닛 팬 미팅 인 바르셀로나 2014'라는 이름으로 열린 공연에는 1000여 팬들이 몰려 열기를 뿜었다. 이 공연에는 스페인 팬들은 물론 이탈리아·프랑스·영국 등 인접 유럽 국가와 브라질·페루 등 남미에서 온 다국적 팬들까지 몰려 포미닛의 춤과 노래에 열광했다.

포미닛은 '이름이 뭐예요?' '뮤직' '거울아 거울아' '몰라 언' '하트 투 하트' 등의 히트곡을 새롭게 리믹스해 불렀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더해 열정적인 해외 팬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팬들은 오늘 밤에 쓸 한국어로 합창하는가 하면 포미닛이 알려준 "대박"이라는 한국어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소속사는 "공연이 끝나고서도 팬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포미닛의 노래를 합창하며 마치 축제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포미닛은 2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두 번째 유럽 공연을 개최한다.

2NE1 말레이시아 공연

2NE1은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한 두 번째 월드투어 '올 오어 나싱' 콘서트로 4000여 명의 팬을 불러모았다.

2012년 국내 걸그룹 최초로 월드투어를 진행하며 그해 12월 말레이시아에서 공연했던 2NE1은 다시 한번 현지를 찾았다. 세계적인 연출가 트래비스 페인과 스테이시 워커가 첫 월드투어에 이어 이번에도 함께하고 레이디가가·마돈나·유투 등의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의 참여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였다.

2NE1은 화려하고 독창적인 무대 연출을 배경으로 '컴백홈'과 '너 아님 안돼' '스크림' 등 정규 2집 수록곡들과 '내가 제일 잘나가' '아이 돈트 케어' 등 기존 히트곡까지 21곡을 선사했다. 짐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을 열광시키는가 하면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무대로 팬들을 감동시켰다. 말레이시아 팬들은 한국어로 가사를 따라 부르며 2NE1과 함께 호흡했다.

/유순호기자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 차승원 /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 이종석 /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 안재현

모델 출신 배우 안방 맹활약

'원조' 차승원·'급성장' 이종석·'원석' 안재현

모델 출신 배우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종석은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에서 물오른 연기력으로 호평 받고 있다. 차승원과 안재현은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이하 너포위)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나 열연 중이다.

그들은 패션쇼 무대를 장악하던 큰 키와 개성 있는 외모로 매력을 발산한다. 연기력까지 갖춰 대중적 인기와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조건을 지녔다.

이종석은 16세부터 모델로 활동했다. 2010년 SBS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서 연기 신고식을 치렀다. SBS '시크릿가든'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KBS2 드라마 '학교2013'과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인기를 얻고 연기력까지 인정 받으며 지난해 SBS 연기대상에서 우수 연기자상을 거머쥐었다.

현재 '닥터 이방인'에선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한다. 메디컬부터 멜로, 코믹에 이르기까지 성숙된 연기를 하며 복합 장르의 흐름을 주도한다. 또 첫사랑 송재희(진세연)를 찾기 위한 애틋한 순애보로 여심을 흔들고 있다.

차승원은 20대 모델 출신 배우들의 롤모델이다. 1988년 모델로 데뷔한 그는 총 24편의 영화와 11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명실공히 배우로 인정받았다.

올해 드라마 '너포위'와 영화 '하이힐'로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너포위'에선 전설적인 형사이자 신의 경찰 P4의 스승인 서판석을 맡았다. 다양한 감정연기를 소화하는 것이 그의 강점. P4에겐 무섭지만 전 부인인 김사경(오윤아)에겐 관일이 여리다. 내달 4일 개봉되는 영화 '하이힐'에선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강력계 형사 지욱을 연기한다. 변신이 기대되는 작품이며 액션 연기는 이미 화제다.

안재현은 2009년 모델로 데뷔한 신예다. 올 초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전지현)의 남동생 천윤재로 연기를 시작했다. 두 번째 작품인 '너포위'에선 P4 중 패셔니스타와 비주얼을 담당하는 박태일 역을 맡았다. 이승기·고아라·박정민 그리고 모델 선배인 차승원과 연기 호흡을 맞추고 있다.

어색한 표정과 대사 처리를 지적 받기도 했지만 유인식 '너포위' PD는 "원석 같은 친구다. 스타로서의 매력이 상당하다"고 캐스팅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권효준 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윈터 슬립' 칸 황금종려상

세일란, 터키 감독 역대 두 번째 영예 거머쥐

터키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 누리 빌게 세일란 감독의 '윈터 슬립'이 제67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25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세일란 감독은 1982년 일마즈 귀니 감독의 '욜'에 이어 터키 감독으로는 두 번째로 칸 영화제 최고 영예를 안았다. 세일란 감독은 "터키 영화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 상을 받아 더욱 기쁘다. 이 상을 (터키 반정부 시위 때) 목숨을 잃은 이들을 포함해 모든 터키 젊은이들에게 바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윈터 슬립'은 터키 아나톨리아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중년 남성과 그의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2위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은 이탈리아 여성 감독 알리스 로르바허의 '더 원더스'에게 돌아갔다. 감독상은 '폭스캐처'의 베넷 밀러 감독이 차지했다.

남우주연상은 '미스터 터너'의 티모시 스폴, 여우주연상은 '맵스 투 더 스타스'의 줄리언 무어가 받았다.

한국영화로는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된 정주리 감독의 '도희야', 학생 경쟁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에 진출한 권현주 감독의 '숨'은 수상하지 못했다.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경쟁부문 심사위원에 뽑힌 전도연은 시상식 뒤 기자회견에서 "유명 감독이든 아니든 선입감 없이 심사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심사위원과 함께 영화를 본 것은 즐거운 경험이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순호 기자 suno@

심사위원의 '여신' 전도연 — 전도연(가운데)이 25일 열린 칸영화제 폐막식에 앞서 경쟁부문 심사위원들과 함께 취재진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AFP 연합뉴스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누리 빌게 세일란 감독(오른쪽)이 심사위원장인 제인 캠피온의 축하를 받고 있다. /AFP 연합뉴스

MBC 박혜진 아나 사직

MBC 간판 앵커 출신인 박혜진(사진) 아나운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24일 MBC 홍보실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향한 출발의 의미로 사직을 결심했다"고 밝힌 박 아나운서는 조만간 퇴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아나운서가 퇴사를 결정한 데에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장기파업의 여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MBC에 입사한 박 아나운서는 2006년부터 3년간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아 소신 있는 발언으로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줬다. 그러나 파업 이후 과거와 같은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프리랜서의 길을 걸을 것으로 알려진 박 아나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앞으로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처음 방송을 시작하던 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박혜진 아나운서의 선배이자 배우 박지영은 MBC를 퇴사한 오상진·문지애 아나운서와 프레인TPC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다. /유순호 기자

김준수 일본 공연 성료

김준수(사진)가 뮤지컬 콘셉트의 라이브 공연에서 6만여 명의 일본 팬들을 사로잡았다.

김준수는 13~15일 도쿄에서 3만 3000석 공연을 연 데 이어 22~24일 오사카에서 3만 명을 불러모으는 '2014 XIA 더 베스트 발라드 스프링 투어 콘서트 인 재팬'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기존 가요 콘서트와 달리 뮤지컬 활동의 주요 곡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평소 뮤지컬을 사랑하는 일본 관객들은 품격 높은 공연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김준수는 이번 공연에서 3시간 동안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 '디셈버'의 주요곡과 '사랑합니다' '언커미티드' '유 아 소 뷰티풀' 등의 발라드, '슬픔의 행방' '스토리' 등 일본곡을 오케스트라와 라이브 밴드의 연주에 맞춰 불렀다.

/유순호 기자

날씨

5/26 月 일출시각 05:15 일몰시각 19:4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6.co.kr

지역	기온
서울	18/25
철원	16/27
대전	16/27
전주	16/27
광주	16/27
제주	16/24
강릉	16/23
울릉도	17/21
대구	20/30
포항	18/30
울산	16/30
부산	17/27

눈이 건조하고 가려워 안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안약 사용은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 환절기 피부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신체임학교 서울백병원 (www.ml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가야 합니다.

	9	4		1	2	5		
	8	1						
5			9	6		2		
							6	5
4		5				8		3
9	7							
		6		4	9			1
						6	8	
		9	6	7		3	5	

					7		8	3
		6	2		8			
3	2		4	1				
					4	9	6	2
	6						5	
4	5	2	8					
				8	1		7	6
			3		9	8		
7	8		6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역서 스도쿠 라이트리 (마이클 리오스 지음))

과거는 과거일 뿐

임경선의 모놀로그

얼마 전 20대 시절의 지인한테 연락이 왔다. 그 시절 몇몇 다른 이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던 사이의 친구였다. 지난 십여 년간 따로 연락은 없었다. 우연히 그녀가 나의 측근과 술자리에서 만나 내 연락처를 알아내 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반가움에 회신하여 몇 개의 문자메시지가 오갔다. 거기까진 좋았다.

옛 멤버들끼리 한 번 뭉치자고 말한 대목에서 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거나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곧 버릇 말씀이나 주고받으며 '언제 한 번 보자' '다음에 한 번 뭉치이지' 라는 말, 우린 참 많이 한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기은 건 첫 재회의 순간 정도가 아닐까? 막상 두 번째 만남을 성사시켜 만난다면 그것은 대개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일 확률이 높다.

왜냐, 현재보다 과거를 공유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공유하기엔 그만큼 서로에게 이젠 관심이 없고, 현재 자기 생활을 얘기하다 보면 자기자랑이나 자기연민으로 들리기 십상이다. 그러면 자연히 과거 시절 이야기를 하나 둘 꺼 올리거나 그 시절의 다른 지인들에 대한 현황공유나 하게 된다. 혹은 반대로 그게 '한 번 뭉치자'는 말이 '그냥 한 말'이면 얼마나 영혼 없는 대화인가!

솔직히 말했다.

"뭘 번거롭게 뭉쳐. 과거는 아름다운 과거로 남겨."

회신이 1초도 안 돼서 돌아왔다.

"나쁜 것.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의리 없다는 듯 그녀는 귀엽게 성을 냈다. 작금의 유행어 '의리'에 비장함과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어떤 대의명분이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 무리하기 때문이다. 의리보다는 신뢰가 낫다.

"때 되면 만나겠지. 볼 사람은 또 어떻게든 보게 되잖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내게 야박하다고 했지만 그건 매정한 게 아니다. 정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행여 진심으로 옛 지인을 굳이 먼지 털어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그녀가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랐다.

/칼럼니스트 [illegible]@[illegible].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사내 인간관계 회의감 드는데 관리 잘하면 40세이후 좋아지

lmb.ss 83년 11월 14일 (양력) 낮 12시 15분 출생

Q 입사한지 만 일 년이 넘어갑니다. 미디어 업계 종사중이구요. 말하는 것을 좋아하나, 최근 사내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사람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생각하듯 남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자기 마음만으로 남을 대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을 올릴 때 남녀 구분을 안 하셨는데 이름을 봐서 여성으로 보고 말씀드리나 남성이라면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귀하는 깔끔하고 예모를 지녔으며 영리한데 결백한 성품이 고립을 자초하며 산사에 생타니 계곡과 같은 형상으로 고적한 기운이 감돕니다. 42세 이후부터 발복할 수 있는 운이 되므로 대인관계에 신경 쓰므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장래를 위한 예금통장에 저축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내도록 하세요. 성공은 반드시 합니다.

공무원 합격 결혼은 가능한지 문제 해결방법 나에게 찾도록

행운12345 여자 79년 5월 15일 (음) 11시경

Q 올해 3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네요. 배우자복은 있는지요? 자식은 낳을 수 있는지요? 요즘에 우울증에 걸렸는지 눈물만 나오고 저는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하는지요? 요즘 취미 생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인연일까요? 일시적 관심일까요? 왜 이리 막혀 있을까요?

A 2014년에는 결혼 운이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라는 의미뿐이 아니라 이를 통해 가족과 사회가 유지된다는 복잡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칫에 결혼이 울타리 역할을 하기보다는 굴레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고독함이 지배적 일수 있습니다. 우울하다는 상황에 더욱 우울함을 가중시킬지 모르나 학습적으로 배운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십시오. 해결방법으로는 항상 벌어지는 문제의 해결은 남보다는 나에게서 찾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운세는 반전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세주옥(陶洗珠玉) 귀한 구슬을 씻듯이 빛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자세로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하여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월 27일 음 4월 28일) 김학수 인생상담 [illegible]

쥐: 48년생 방심하면 눈뜨고 당한다 60년생 배우자가 야속해도 참아라 72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사각이 돕는다 84년생 기회 왔을 때 운신의 폭 넓혀라

소: 49년생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라 61년생 구직자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다 73년생 자신감이 있어도 무리는 금물~ 85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곧 듣는다

호랑이: 50년생 고집부리면 좋은 소리 못 듣는다 62년생 진전이 없는 일은 포기할 것 74년생 이웃한 대응은 화만 키운다 86년생 횡재할 일이 생기니 기대하라

토끼: 51년생 엉뚱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조심~ 63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궁지에서 탈출한다 75년생 신뢰회복이 최우선임을 명심~ 87년생 상사 칭찬에 출근이 즐겁다

용: 52년생 삶에 활력소 될 일이 생긴다 64년생 힘들다고 도망치면 더 손해~ 76년생 희망이 있는 한 기회는 있다 88년생 이성의 데이트 신청 받고 가슴이 콩닥~

뱀: 53년생 지나간 일에 집착 말라 65년생 책임감 있는 일처리에 박수 쏟아진다 77년생 중요한 일은 직접 챙겨라 89년생 귀인 만나서 공을 선물 받는다

말: 42년생 밖으로 나가면 일이 즐겁다 54년생 일을 회에하나 실망하지 말라 66년생 몸은 바쁘나 뭇은 없어지 않는다 78년생 공격보단 방어가 유리한 날~

양: 43년생 무모한 계획은 접어라 55년생 겸손할수록 명예는 더 높아진다 67년생 공적인 돈은 세세하게 따져 지불하라 79년생 습관을 바꾸면 새 길이 보인다

원숭이: 44년생 생각도 못한 선물 생긴다 56년생 배우자에게 화가 나도 참아라 68년생 최선을 다하면 바라던 일은 이루어진다 80년생 유혹에 이기는 지혜가 필요~

닭: 45년생 외출하면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57년생 투자한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69년생 경쟁자의 동향을 잘 살펴보라 81년생 존경할 선배가 생겨서 좋다

개: 46년생 지출에 경사가 생긴다 58년생 꾸준하게 노력한 인맥 자랑은 두둑~ 70년생 저질 사고치는 일 모두 좋은 소식 있다 82년생 자기관리에 신경 써라

돼지: 47년생 외출 땐 안전사고 조심~ 59년생 보고도 모르는 척 해야 할 일이 생긴다 71년생 사소한 말에 활 해지 말라 83년생 직장서 생긴 문제는 해결이 된다

레알 마드리드 10번째 챔스리그 정상

역대 최다 우승 유럽 최고 클럽에 '우뚝'
호날두 이름값 시즌 최다 17골 득점왕

역대 10번째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고 유럽 축구 정상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25일 포르투갈 리스본 에스타디오 다 루즈에서 열린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연장 접전 끝에 4-1로 눌렀다.

화려한 스타진용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는 보지림 이름값에 걸맞게 경기 종료 직전 화려한 역전쇼를 선보였다. 전반 36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구 고딘에게 헤딩 선제골을 내주며 0-1로 우승컵을 내줄 위기에 몰렸지만 후반 48분 루카 모드리치의 코너킥을 세르히오 라모스가 헤딩슛으로 연결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연장에 접어들자 레알 마드리드의 화력은 본격적으로 불을 뿜었다. 연장 후반 5분 앙헬 디 마리아가 꼭꿍 드리블에 이어 왼발 슛을 날렸고 상대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발을 맞고 나온 볼을 가레스 베일이 머리로 받아 결승골을 뽑았다.

이어 마르셀루의 쐐기골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페널티킥 골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호날두는 이번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득점왕(31골)을 차지한데 이어 UEFA 챔피언스리그 한 시즌 최다골(17골) 기록까지 세우며 세계 최고 골잡이의 명성을 높였다.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통산 68골로 리오넬 메시(67골)를 제치고 라울 곤살레스(71골)에 이어 역대 챔피언스리그 통산 득점 2위에 올라섰다. 그는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초로 자국 연고팀끼리의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물론 고국 포르투갈에서 열린 결승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봤다.

호날두가 이날 세운 기록은 이뿐만이 아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코파 델 레이(스페인국왕컵)에 이어 올 시즌 더블을 선사했고 무엇보다 2001~2002시즌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최다인 10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안기며 '라 데시마'(챔피언스리그 10회 우승) 달성에 큰 공을 했다.

2007~2008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일궜던 호날두는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라이벌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개인 통산 두 번째 FIFA 발롱도르를 수상한 호날두는 자신의 이력에 각종 기록을 추가하며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활약도 예고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류현진 27일 5승 도전

신시내티 상대 … 홈 부진 만회 노려

'돌아온 몬스터' 류현진(27·LA다저스·사진)이 신시내티 레즈를 상대로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전망은 밝다.

다저스는 25일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인 게임 노트를 통해 27일 오전 9시 10분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신시내티와의 홈경기 선발투수로 류현진을 예고했다.

견갑골 염증으로 처음 부상자 명단(DL)에 올랐다가 24일 만에 등판한 지난 22일 뉴욕 메츠전에서 성공적으로 복귀한 류현진이 신시내티전에서 연승을 이어간다면 본격적인 '승수 사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올 시즌 신시내티의 나선을 보면 류현진의 연승 행진도 충분히 가능하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지난해 몸담은 팀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신시내티는 올 시즌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에 올라 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인 다저스와 순위가 비슷하고, 두 팀 불균형이 상당하다는 점도 닮았다.

팀 평균자책점이 3.60으로 내셔널리그 15개 팀 가운데 8위이고 피안타율이 0.231로 1위, 이닝당 출루허용(WHIP)이 1.22로 5위에 오르는 등 마운드는 든든하지만 타선이 취약하다.

팀 타율(0.242)은 리그 11위이고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도 0.654로 똑같은 11위다. 팀 득점(165개)과 팀 타점(155개)은 나란히 13위다.

올 시즌 홈에서 등판한 세 경기에서 5.0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2패를 떠 안은 류현진이 신시내티를 상대로 홈 징크스를 펼지도 주목된다. /김성원기자 [illegible]

윤석영 월드컵 대표팀 합류

소속팀 QPR은 프리미어리그 승격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의 윤석영(사진)이 소속팀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뒤로하고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했다.

윤석영은 25일 오후 입국해 곧바로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입소했다. 홍명보호의 왼쪽 풀백으로 발탁된 윤석영은 14일 NFC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소속팀 QPR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소집하지 못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예비명단에 포함된 선수가 19~25일 소속팀 경기에 나설 수 없도록 '의무 휴식 기간'으로 지정했으나 QPR은 준결승전 승리 이후 윤석영을 보내주지 않았다.

QPR은 윤석영 없이 25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치른 더비 카운티와의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보비 자모라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QPR은 프리미어리그 강등 1년 만에 다시 승격됐다.

지난해 1월 QPR에 입단한 윤석영은 첫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데뷔전도 치르지 못한 채 팀이 강등되는 쓴맛을 봤으나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기약하게 됐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25일)

■ 울산

KIA	221	020	000	7
롯데	001	002	020	5

■ 잠실

한화	201	012	000	6
두산	004	030	20X	9

■ 문학

LG	302	100	000	6
SK	132	100	11X	9

■ 대구

넥센	000	000	002	2
삼성	201	140	10X	[illegible]

추신수 또 발목이 문제

절정 타격감에도 부상 교체

최상의 타격감과 선구안을 자랑하는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5일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원정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최근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최상의 컨디션을 뽐냈다.

그러나 6회말 공수교대 때 좌익수 자리에는 추신수가 아닌 마이클 초이스가 대수비로 나왔다. 텍사스 구단은 "추신수가 왼쪽 발목에 통증을 느껴 교체했고, 순전히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추신수는 5회말 1사 1루에서 라자이 데이비스의 땅볼을 잡은 뒤 1루 주자 앤드류 로마인의 진루를 막기 위해 공을 던졌다. 이때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6회초 볼넷으로 걸어 나갔지만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6회말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다.

경기 직후 치료를 받은 추신수는 "내일 오전에 일어나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왼쪽 발목에 부상을 당한 추신수는 잦은 통증으로 연례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달에는 왼쪽 발목 부상으로 21일부터 6경기 연속 결장한 바 있다. /김성원기자